

韓國 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

〈 韓國學校建築의 史的 整理를 통한 近代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2

劉 香 山

誠信女師大 副教授

3.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背景

1. 近世以前의 哲學的背景

1) 教育思想面에서

- ① 外來思想이 들어오기 以前
- ② 外來思想이 들어온 以後

2) 建築文化面에서

- ① 韓國固有의 建築文化

가. 家屋形態의 校舍

- ㉠ 韓國의 自然環境
- ㉡ 韓國의 建築藝術의 特性

나. 韓屋의 特性

- ㉢ 第1期
- ㉣ 第2期
- ㉤ 第3期
- ㉥ 第4期

2. 韓國學校建築의 實例

3.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背景

梨花學堂 初代 堂長이신 Scranton夫人이 우리 韓國 女性들에게 宣敎事業을 目的으로 行한 女性教育事業을 實施할때 그는 말씀하시길 “우리의 目標은 이 女兒들 로 하여금 우리 外國사람의 生活, 衣服 및 環境에 맞 도록 變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韓國人을 보다 나은 韓國人으로 만들므로서 만족한다. 우리는 韓國人이 韓國의인 것에 對하여 功지를 가지게 되기를 希望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敎訓을 通하여 完全무결한 韓國人을 만들고자 希望한다”고^① 하였 으며 또한 2代 堂長인 로드 와일러도 “그들이 장차 學校를 떠난 뒤에도 만족시킬수 없는 要求를 가지지 않 게 하는 程度안에서 改良할 수 있는 點을 改良하면서 韓國實情에 맞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보다 나은 韓國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요. 外國人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②라고 하였듯이 그들은 眞心으로 韓國人을 爲한 宣敎事業이요, 教育事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後述하겠지만 韓屋을 헐고 洋屋을 지어 우리나라 女性들을 안방에서 끌어내어 여기에다 寄宿을 시키고 함께 共同生活을 하게하였고 더욱이 放學이 없이 完全히 女性들만의 共同 家庭살림을 위한 장소를 마련 하였든 것이다.

이와 같은 歷史의 事實은 다음 두가지 面에서 오늘 에 이르러서 크게 問題의 始發點을 가졌다고 본다. 첫째는 우리나라 自然環境 및 社會環境에서 오는 韓國民의 國民性을 몰랐다는 事實이며, 둘째는 學習을 위한 物理的 環境에서 學校校舍가 敎授方法에 커다란 影響을 주는것을 認識하기에는 너무 이른時代였다는 事實이다.

自然環境의(地理的 條件 포함), 그리고 社會環境의 條件에서 오는 韓國國民性은 “밖으로 뻗어나갈 여유도 없거니와 뜻도없고, 있는 상황이나 유지하고 防禦하는데 만도 힘이 겹다보니 平和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中國을 大國으로보고, 我國을 小國으로 보는 소위 事大思想”^③이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 하였으니 아무리 “秀麗한 文化의 力量과 藝術性이 있다해도 그것을 밖 에 알리지도 않고 그것을 밖으로 크게 빛을 내지 못하는” 國民性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面에서 西歐文化를 받아들이기에는 國民自身의 마음의 準備가 없었고 특히 女性에게 있어서 教育의 機會均等이 처음 행하였던 그 當時의 女性들에게 있어서는 「내것위에 남의것을 소화 하는」 힘이란 어려웠다. 그러므로, 「學校建築의 韓國化」라는 問題에다 초점을 맞추어 볼때, 그때 韓國民은

西洋建築에 대하여 우리에게 당장 편리하였고 새로운 것이었으므로 學校 建築에서는 韓屋을 外面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더하여 一般建築은 學校建築에 教育的 觀點없이 위와같은 洋式建築을 지금까지 세워온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거나 지금생각해 보거나 洋式建築의 哲學的背景과 韓式建築의 哲學的背景은(後術하겠으나)엄연히 出發點과 方向이 다르며 地域의인 自然의 特殊性이 다르며, 더욱이 國民教育思想이 다른데 여기서 國際的인 面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다. 國際的인 것은 自己것이 있는 다음에 必要한 것이다) 「우리의 것」을 찾자고 하는데 있어서 讀者들은 異見이 없을줄 안다. 다만 「우리의 것」을 어떻게 찾느냐가 問題이고 여기서 이것을 研究하고자 하는 意圖가 있기에 먼저 洋式建築이 도입된 前後를 中心해서 韓國 學校建築의 哲學的背景을 教育思想面, 自然環境面, 建築文化面, 社會環境面, 그리고 生活環境面을 中心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1 近世以前的 哲學的背景

1) 教育思想面에서

① 外來思想이 들어오기 以前

우리나라 “上古時代 固有思想期”④가 있었다. 이것은 外國思想이 미치지 않고 文字와 學校를 가지지 않고 教育을 行하던 時期이다. 그런데 지금에 教育法中 教育目的을 「弘益人間」으로 본것은 사실은 이 時代의 教育思想이었다.

「弘益人間」을 좀더 說明하기로 한다.

이땅에 사람들은 이 世上을 三層으로 区分하여 그중 윗층에는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중간층에는 一般사람들이 살고 아랫층에는 惡한 귀신들이 있어, 이들의 장난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안되면 윗층의 하나님께 비는것이 일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하느님의 여러 아드님 가운데 桓雄이라는 이가 弘益人間하실 생각으로 특히 아버님의 허락을 얻어 部下 삼천을 거느리시고 太白山에 내려오셔서 거기에다 神市를 펴시고 風伯으로 하여금 바람을, 雨師로 하여금 비를, 雲師로 하여금 구름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음에 主穀에게는 食糧을 主命에게는 生命을, 主病刑에게는 疾病과 刑罰을 맡아보게 하시어 무릇 人間에 關한 360여가지의 일을 살피시게되니 이때부터 어지럽던 世上은 바로 잡히게 되었다 한다. 桓雄한배님의 아드님이신 단군 한배님은 아버님의 거룩한 뜻을 한층 더 널리 펴시기 위하여 山水 좋고 물맑은 平壤에다 큰터를 잡으시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各部族을 한데 모아 한 큰나라를 이룩하시니 이것이 곧 韓國이 생긴 始初라고 한다. 이때부터 여러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재

미를 붙여 지금까지 하여온 原始生活을 모조리 걷어치우고 집도 짓고 女子는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입으니 그 살림은 하루 하루 向上되어 世上은 크게 啓明하였다한다.

이때부터 弘益人間 思想은 이나라 사람들의 크나큰 精神的 기둥이 되어 윗사람이 行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본받아 감히 어기지 못하는 國民의 大道가 어느덧 이루어졌다. 이를 사람들은 「부루」(神敎, 또는 天道)의 가르침이라하여 지켜나갔고 그리고 그時代에 있어 이 가르침을 맡으신이가 그대로 世上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으니 國祖 단군님이 이미 「부루의 가르침」에서 힘쓴일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었다. 그러므로 더러움은 곧 罪惡이요, 혹시라도 몸이나 집안에 더러움이 붙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을 떨어 버려서 天罰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가심」「풀이」를 하여야 했다. 옛날부터 옷을 희게 입는것은 깨끗함에서 나온 말이요. 또 해마다 유월 유두에는 온집안 사람들이 東流水에 나가서 목욕을 하는 風習이 있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떨어버리기 위함이요. 설달 그믐에 무서운 탈을 쓰고 집안을 두루 뒤져서 “덧보기놀이”를 하였음은 一年동안 집에 붙어있는 더러움을 가셔내고자 하는데서 행해진 일이었다.

다음에 사람의 倫氣로 힘쓰게 한것은 父母를 위함과 나랏일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과 옳은일에 용감하고 악한일에 가까이 하지 아니함과 이론을 캐지않고 實行을 함과 團體行事로는 歌舞와 音樂을 숭상하여 利同精神을 길렀으며, 때로는 이름난 옛자취를 두루 찾게하며, 애국심 배양에 힘을 썼든 思想이 바로 弘益人間 思想이다.

② 外來思想이 들어온 以後

그러나 三國時代부터는 生活이 安定되고 사치에 흐르자 民心이 방탕함을 타서 中間을 통하여 需敎思想, 佛敎思想이 들어왔다. 이때에 “高句麗의 小獸林王 2年(372)은 儒敎思想, 佛敎思想을 받아들였던 임금”⑥이다. 그는 未婚의 子弟들을 선발하여 글을 읽고 화살을 쓰는 공부를 하도록 하였고 地方에는 私塾을 열어 廡堂이라 하였다.

儒敎思想은 “孔子的 가르치심”인 「仁의道」에 처한 思想이다. 즉 「仁의道」란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과 친히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사람이나, 없는이에게 동정을 하고 으뜸가는 사람은 덕을 가추어 아랫사람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烈女傳에서 「夫入이 아이를 배었을때 옆으로 잠자지 말지며, 한쪽에 앉지 말지며 서매를 치들지 말지며, 텅텅한 음식을 입에 하지 말지며, 바르게 꿇은것이 아

니면 먹지 말지며, 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지 말지며 눈으로 옳지 않은 빛을 보지 말지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지며, 밤이면 소경으로 하여금 詩를 외우게 하여 이것을 듣고 항상 바른일을 말할 지니라,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으며 얼굴과 모양이 단정하고 재조가 사람에게 뛰어나리라」한것을 보면 女性道도 포함하고 있다.

新羅의 国学에서도 儒教思想을 中心으로 教育이 行하여졌다. “新羅統一 以後 20年뒤 이로부터 32年前 眞德王五年(2984年)에 博士, 助教, 약간명의 大舍(教育을 맡은 管理) 2人을 두어 教育을 行하게 했다.”^⑦

學語에 「예로부터 사람을 가르친 곳으로 家에 塾이 있었고 黨에는 痒이 있었고, 術에는 序가 있었고, 國에는 學이 있었다」하였으니 이것이 學校였다.

儒教思想 教育은 春秋, 禮記, 詩經, 書經, 易經 등을 通해서 했고 이 위에다 樂經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후 高麗時代에 와서 韓國은 完全히 儒教思想의 依存期였다.

太祖 王建이 이나라를 세우고 13年후에 學校를 지었으니 高麗史에서 보면 「太祖 13年(3263年)에 西京에 거동하여 學校를 새로 짓고 이름난 선비 정악(廷鶚)을 命하여 書學博士를 삼고 學院을 따로 두어 六部 生도로 모아서 가르치며, 아울러 醫學, 卜術 두가지의 과정을 두었다」고 한다.

成宗11年(3325)에 國子監을 세우고 叡宗 4年(3442)에는 그內容을 크게 넓혀 麗澤待聘, 經德, 求仁, 服膺, 養正, 講芸의 七齋를 두어 文武教育을 장려하고, 仁宗 때에 비로서 學制가 마련되었다. 國子監은 禮部에 屬하며 여기에 博士, 助教授(經學에 밝고 學術이 높은 사람), 를 두었고, 學生은 文武官 三品以上의 高官의 아들 30名을 두었다. 教育內容을 주역, 상서, 주례, 예가, 毛詩, 춘추,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 효경, 논어, 율학, 서학, 산학, 등을 9년 수업하여 儒教思想을 注入시켰다.

이 외에도 “大學과 四門學이 있다.”^⑧이는 國子監과 비슷하고 文武官 5品以上의 관리子弟를 가르쳤고, 四門學은 七品以上의 管理子弟를 가르쳤으며, 教育內容은 律學, 書學, 敎學, 그외는 國子監과 비슷하다. 또한 高麗史 學校考에 보면 「仁宗 5年(3460年)에 여러 고을에 詔書를 내려 學校를 세우게하여 敎道를 넓힌다」고 하였으며, 「成宗11年(3325)에 勝地를 가리어 書齋를 늘리 지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地方선비를 위하여 세운 鄉校이다. 여기에는 孔子를 위하는 文宣王廟를 中心으로 明倫堂이라는 곧 教育을 베푸는 道場이 있었다.”

그리고 “高麗史 學校考에서 보듯이 高麗 元宗 2年(3594)에 東西學堂을 두고 別監을 두어 가르치게 했으

며 또 五部學堂을 세워 儒學을 떨치게 했다.”^⑩ 이외에 地方鄉校에 向한 教育으로 12徒가 있었다. 이는 高麗의 「敎育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私立學校이다.

書堂은 一般民衆의 敎育機關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局堂이고 三國時代는 물론 統一新羅時代를 거쳐 高麗에 이르는 동안에 그 敎育的 質, 量과 그 수요에 있어서 大衆敎育機關의 地位를 꾸준히 유지해 왔음은 송나라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에 「마을거리마다 經館과 書社(書堂)가 두셋씩 바라보이며 大家들기전에 一般民 門下子弟들이 여기에 모여 스승에게 經을 배우며 좀 장성하면 저희들끼리 동무를 가려서 절간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卒兵이나 아주 어린애까지도 역시 鄉先生에게 나아가서 배운다.”^⑪ 고 하였고, 書堂은 역시 李朝時代에 들어가서 더욱 빛을 내었다.

朝鮮王朝은 儒學을 바탕으로 하여 建國한다고 표방하고 高麗까지의 佛敎로 因한 퇴폐풍조를 改革한다고 公約하였다.

나라수립을 공포함과 同時에 새나라 첫임금 太祖는 成均館을 세웠다. 이는 孔子등 聖賢을 모시는 聖殿(大成殿)을 校庭의 前域에 建立하고 그 뒷편에 校舍 明倫堂을 造營하였다. 太祖가 서울로 수도를 옮기면서 옮겨진 成均館이 오늘에 이르는데 이는 “高麗朝의 모방된 敎育制度를 그대로 인계 답습한 면이 많았다. 儒敎道德에 젖은 양반관료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敎育도 주로 양반자제를 대상으로하여 관리양성에 주목적이 있었고 학교는 과거시험을 위한 기관에 불과하였다.

成均館은 大學의 機能을 가진 最高學部로서 임금이 스스로 관여하여 國費로서 國家의 人材養成을 目的으로한 敎育機關이었다. 따라서 成均館 儒生들에게는 文科를 비롯하여 各種 試驗에 應試할 機會를 많이 주는 特典이 부여되었다.

成均館의 入學資格은 進士와 生員의 資格을 가진 儒生들이었고 缺員이 있을때는 四學의 學生중에서 선발하였다. 學科目 역시 中國古典으로 構成되었고 敎授方法은 個別指導에 치중하였다. 學生生活은 禮法과 規律과 自治精神을 지닌 선비의 道를 닦는데 힘썼다.

四學도 역시 國費로 運營되었고 成均館에 豫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規模는 적었으나 그 敎育方針에는 差異點이 별로 없었다. 四學은 中等敎育程度의 敎育機關으로서 서울에 設立되었고, 그 位置에 따라 각기 東學, 西學, 南學, 中學이라 하였다. 學生의 자격은 양반자제와 민간인중 수재를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 四學은 兪度을 보지 못하고 李朝末葉에 와서는 學生定員 미달로 부진한 상태였다.

書院은 私立의 中等敎育機關이다. 私學機關인 書院도 國王의 큰 關心事가 되어 장려되었다는 사실은 注目할만 하다.

「先賢傳敎과 後進授學」을 目的으로 한 書院은 官學에서 받는 規制없이 自由스러운 風土에서 名儒功臣의 有德을 추모하는 同時에 靑年子弟들에게 學門과 德을 닦게 하는 修道場의 機能을 가진 點에서 官學보다는 도리어 優월한 點이 있다. 그러나 書院의 積弊와 派閥對立은 非難의 對象이 되어 마침내 大元군에 의하여 폐 쇄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書堂은 初等敎育程度의 私塾이었다. 書堂의 敎育的 意味는 特히 庶民子弟들에게 敎育의 機會를 주었다는 點에 있다. 一般庶民에게 널리 敎育機會를 준점은 國民敎育의 重要한 役割을 맡고 있음을 말해준다. 書堂은 學校라고 부르기에 는 미약한 存在이었으나 그만큼 設立이 용이하였고 자유자재로 運營할수 있었다. 運營을 위한 基本財産이나 훈장의 一定基準이 없었으므로 漢文을 解得하는 사람이면 訓長에 任할수 있었고 누구나 뜻을 가진 사람이면 방 한칸의 준비로서 書堂이 開設되었고, 이같이 庶民敎育機關으로서의 書堂은 순수 民間人에 의해서 設立 運營되어 그 보급이 村落까지 미치게 되었다. 書堂은 네 종류가 있었는데 “訓長 自身이 生計를 위해서나 또는 취미로 自營하는 書堂, 또는 洞內 有志가 訓長의 給料를 自擔하여 自己子弟와 親知의 子弟를 敎育하는 獨自으로 運營하는 書堂, 또는 有志들이 組合을 이루어 訓長을 초빙하여 그들이 子弟를 敎育하는 書堂, 村組合書堂으로서 마을전체가 組合하여 一般子弟를 敎育하는 書堂등이 있다.”^⑩

書堂敎育의 目的은 郷校나 四學 등 上級學校에 進學할수 있는 준비敎育을 시키는 點이었고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靑少年들에게 儒學入門을 위한 效果를 많이 보았다. “學科目으로는 千字文으로 시작하여 童蒙先習, 通鑑, 小學, 四書, 三經, 등으로 나아갔고, 敎育方法으로는 注入式을 버리고 연구력을 배양하며, 엄격한 規程을 지켜 끈기있는 노력을 하고 心身을 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⑪

2) 建築文化面에서

① 韓國固有의 建築文化

가 家屋形態의 校舍

「學校」라고 부르기에 는 너무도 미약한 「塾」(지금의 校舍)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固有한 韓屋이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屬堂, 書堂, 書院, 郷校 등이 그러한 韓屋이었다.

이러한 固有한 韓屋은 韓國의 固有한 自然環境 및 國民의 特殊한 建築藝術性에 依해서 形成되었다.

(7) 韓國의 自然環境

우리나라는 數理的 位置에서 보면 동경 124° ~ 132° 사이와 북위 33° 와 43° 사이에 있다. 地理的 位置에서 보면 亞世亞大陸 東部에서 東海와 황해 사이에 南北으로 길게 뻗은 半島國이다.

우리나라는 서북쪽으로는 中國이 있고 東南쪽으로는 日本이 있다.

주요산맥과 하천 그리고 하천연안의 평지들이 대개 北東~南西方向, 東西方向 혹은 이에 가까운 方向으로 뻗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北東~南西方向과 北西~南東方向의 두方向 이들 각각 中國方向, 韓國方向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地形에는 이러한 特殊한 方向의 절리 단층성 내지 구조선이 發達하여 하천의 연장이나 평지의 발달을 유도했고 따라서 산지도 그런식으로 발달된 곳이 많다.

韓半島의 서안과 남안에는 경동지역의 완사면 발달을 따라 구릉성의 침식평지들이 비교적 넓게 發達하였다. 동해안에는 평지발달이 미약하다. 그런데 침식평지가 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규모가 작아지고 극단적으로는 산록완사면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런 지형이 풍화가 잘되는 화강암 지역에서 발달된 경우에는 내륙지방에도 비교적 넓은 평지가 형성된다.

그런 침식평지등의 고도가 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점이다. (강원도에는 그 고도가 400 ~ 500m에서 600 ~ 700m 까지 나타나 있는 곳도 있다.

내륙에 발달된 침식평지가 하천방향을 따라 연속 혹은 단속되면서 이어져 있고 그것은 지질구조상의 반도 지구에서 특히 현저하게 모든 침식평지는 중국방향으로 發達 연장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평지는 거의가 침식으로된 침식평지이며 퇴적으로된 선상지나 삼각주의 발달은 미약한점이 특색이다.

한반도 서안과 남안에는 경동지형 완사면의 산형과 곡지들이 물에 잠겨 형성된 갭각 만입 도서들이 발달하여 종래는 침강해안으로 불리워왔다. 그리고 삼남 이북과 삼남 이남을 비교하면 삼남 이남의 해안선에 그런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에는 종래 용기해안, 소규모의 해안선 출입, 북부해안의 석호는 갭각에서 뻗은 사취가 바다를 둘러싸서 형성된 것이 강원도 남부해안에서 보는 절벽모양의 암석해안과 낮은분지 모양으로된 낮은지역의 해안이 교대되면서 나타나는 것등을 보아 동해안에도 원래에는 조그만 포만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수심으로 볼때 황해와 남해는 깊이가 거의 80m 이내의 천해로써 깊은 곳이라야 겨우 100m 정도이다. 그러나 東海는 깊이가 거의 1000m 이상이고 북쪽깊은 곳의 평균 수심은 3500m에 달하였다.

황해와 남해는 전형적인 대륙풍을 이루어 육지면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 함몰된 분상 분지모양의 바다인 東海는 해안근방에서 2000m 内外의 수심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한편 황해와 南海는 바다가 얕아서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그리고 황해안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여 인천 앞바다에서는 그차가 보통 9m에 달한다. 이와같이 심한 조석 간만의 차로 조류도 급하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대부분에서는 시속 10km를 넘는다. 그리고 황해에는 육지에서 운반된 많은 진흙때문에 바닷물이 몹시 흐르고 썰물 때에는 대부분의 해안이 수 km에 걸쳐 진흙으로 덮인 갯벌을 이룬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이러한 特色은 양식업이나 염전 축조 간척사업 등에 유리하다. 그러나 항구나 수상교통의 발달에는 불리하다. 한편 조석간만의 차가없는 바다로 알려진 東海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0,3m 정도에 불과하고 조류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흰모래가 아름답게 깔려 있어 황해안과 남해안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바닷물도 맑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은 겨울에 심한 저온과 삼한사온이 있다. 제주도의 1월 평균기온차는 동일위도 지역의 1월 평균기온치보다 10,2℃ 낮고, 또 신의주의 1월 평균기온치도 동일위도 지역의 1월 평균기온치보다 10℃ 이상이 낮다. 겨울의 평안도 함경도 북부간의 최저기온은 -30℃ 에서 -40℃내외에 달하고 서울 부산의 연간 최저 기온도 각각 -15℃, -5℃ 이하로 내려가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 주변의 1월 기압배치를 보면 서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뻗어와 있고 太平洋쪽으로는 저압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日本 北部에는 저기압도 발달하고 있다. 몽고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장 성할 무렵에는 1060~1080mb에 달하여 저기압과의 사이에 심한 기압경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동반부를 이루고 있는 大氣는 極地方의 한냉大氣가南下한 것으로서 極度로 냉각되어 있으므로 우심한 기압경도를 나타내는 原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몹시 더워 7월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평균기온이 25℃ 내외를 나타내고, 또 함경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걸쳐 30℃내외의 高温이 여러날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年平均 강수량 분포를 보면 함경도 일대와 같이 500~600mm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강수량은 1000mm 이상이다.

봄이되면 약화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여 동진하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한냉한 오호츠크해상에서 정지되어 중위도 고기압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이 고온이고 겨울이 저온인 만큼 자연 기온의 연교차가 현저하여 연기온교차가 20℃ 이상되는곳이 우리나라에서는 허다하다 고로 대륙성기

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온대에 속하며 사철의 계절변화가 뚜렷하지만 해양적이기 보다는 대륙적인 性質을 띄어 봄, 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이 무척 길다. 南쪽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기간이 각각 10월말에서 3월말, 11월말에서 3월 상순이다. 북쪽에서는 더욱 길어 각각 9월말에서 4월말, 10월초에서 4월말에 걸쳐 얼음이 언다. 中部 以北에서는 겨울에는 강도언다. 한강의 동결기간은 12월하순에서 2월하순, 압록강, 두만강의 동결 기간은 12월상순에서 3월하순에 걸친다.

봄과 가을은 몬순이 교대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기압의 升降이 일정치 않아 풍향에 變化가 많다. 또한 봄에 볼수있는 황사현상은 몽고지방에서 한냉전선의 통과에서 불려 올려진 대단히 작은 모래들이 상공의 편서풍에 날려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토양은 갈색 삼림토와 적색토가 그 특징이고 유기성분이 적은 산성 토양이며 주요한 광물로는 금, 철, 석탄, 중석, 흑연, 물리보덴, 마그네사이트, 구리, 아연, 운모, 형석, 석회석, 고령토등이다.

㉠ 韓國의 建築藝術의 特性

우리나라는 開國을 하는때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나 「山」을 中心으로 이루어 졌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런산을 위하는 생각이 더 적극적이어서 한마을의 뒷산, 한고을의 큰산, 한나라의 중심되는 산을 鎮山으로 만드는 制度가 一般化 되었다.”[㉠] 그리고 “이들 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받들려 하였다.”[㉡] 큰산 그중에도 白頭山, 金剛山, 智異山, 漢拏山등의 명산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영험이 서리어 있고 하느님의 섭리가 神에게 접근 할수있는 道場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가령 가뭄에 비를 빌기 위하여 산에가고 아들을 낳고 싶어도 산에가고 임금이 되고 싶어도 산에가서 빌었다.[㉢]

精神的으로는 산과 가까이 있고 (하느님) 實際로 建築藝術에서 보면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순수한 人間性 특히 平等性에 根據한다. (초가집의 경우).

原始時代를 보면 東西洋이 비슷한 建築構造를 가진 것을 볼수있다. 이것은 당시 서로 交通하여 文化儒達에서 온것은 아니다. 이는 人間순수성과 自然에서부터 保護하고자 하는 人間の 共通性임을 알수있다. 따라서 그후에 (東西洋마찬가지)나타난 宗教的, 政治的인 社會上的 絶對性으로 建築된 그文化는 韓國的이 아닌 것이다. 申榮勳에 의하다면 순수한 한국건축문화를 지금 찾을수는 없으나 한옥은 분명히 中國式의 建築物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嶺넘어 한마을, 굽이진 개울따라 감돌아 들면 또 한마을 개울 건너 재를 넘으면 또 한마을이 있는 그런 山川에 나라로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들

은 비옥하고 기름지며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의 나라이다. 삼면이 바다여서 섬나라와 다르고 대륙만이 아니어서 오밀조밀 할수있는 그런 律動을 지닌 고장이다. 이 律動은 韓族의 特性을 함양하였고 그것은 우리나라 건축의 基調가 되었다.”^⑩ 또한 “간결하고 質朴한 것을 으뜸으로 치던 山谷間人의 性品은 建築에 平靜하고 온화한 氣品이 서리기를 요구하게 되어 이것이 역대 건축의 근본이 되었다.”^⑪

“같은 여건의 自然과 人文에서 함양된 人格에는 共通性이 존재하며 이 共通性에서 저절로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건축의 法式, 樣式技法이라고 부른다.”^⑫

그리고 집은 形成되는 空間에서 부터 비롯된다. 空間形成의 方式은 달라도 꼭같은 意味를 갖는 空間이 南쪽이나 北쪽의 전혀 交流가 없는 民族間에 생길수있음은 人間의 순수한 五官과 表現이 同一하기 때문이다.

나. 韓國의 特性

㉠ 第1期

韓屋의 第1期은 有史以來부터 新羅 武烈王때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原始建築이 社會發展에 따라 國內外의 여건에 자극되어서 文化建築으로써 발돋움하고 그것이 기틀을 잡아 한옥의 형상을 결정하는 진통기를 지나던 때이다.

그리고 韓半島와 滿洲地方에 걸쳐 영토를 가졌던 高句麗와 百濟 新羅의 세나라가 鼎立하던 時期이고 黑海地方과의 연락, 中國을 거쳐 들어오는 文化가 建築技術을 광목하게 發展시킨 時期이며 佛敎라는 새로운 宗敎를 포용하기에 필요한 집이 활발하게 지어져 建築經濟社會를 크게 振作시킨 時代이다. 그리고 建築構成에 必要한 數學이 中國에서 도입된 時期이기도 하다. 周髀算經이라는 漢나라의 數學冊에 開平3分敎, 重差, 圓周率3等을 計算하는 公式이 실렸고 「九章算術」에서는 面積, 分敎, 公約數, 步合, 比例, 開法, 聯立方程式, 商工, 均輪등이 정리되었다. 이런 數理는 일찍부터 채택되양 建築造營의 基本으로 삼아졌다. 집짓는데 반드시 必要한 尺度로 정리되어 高麗尺이라고 불리우는 尺(자)이 大小로 마련되어 집짓는 마름질에 쓰였다.

이 時期에는 自然에서 얻어지는 材料라고 사람들이 加工한 材料가 채용되게 되었고 그 加工의 技術이 發達되어 多量生産이 可能하게 되었다. 特히 기와를 만들고 전돌굽고 큰돌을 깨트리고 운반하여 다듬는 기술이 능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自然에서 얻어지는 1次 材料 自然物을 加工하는 2次 材料, 自然物로 助成하는 3次 材料가 모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觀에 따른 다듬는 솜씨도

發達하였고 각기의 치장에 概念을 부여할줄 알게되었다. 이로써 건축의 모든 基盤이 구축되었고 人知發達에 따른 훈련된 有能한 建築家들이 충분히 輩出되어 모든 建築物를 다룰수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時代의 公共建築物은 宮殿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된다. 초기의 君主는 司祭를 겸하였으므로 宮殿과 寺社는 동시에 발전하였다. 이들 宮殿은 初期의 段階를 벗어나며 벌써 제법 격식을 갖추는 기와집으로 지어졌다.

이時期의 建築樣式은 “공포의 모양”이다.

공포는 기둥위에 놓여 지붕을 바치는 모든것을 떠받들도록 만들어진 組織을 통털어 일컫는 말이다. 기둥이 바로 대들보를 떠받치도록 집에는 공포가 있을수 없다. 이는 공포가 없는 집으로 無拱牙系라고 부른다. 拱牙는 공포라는 말이다.

㉡ 第2期

이때는 新羅 文武王에서 부터 高麗元宗까지의 時期이다.

이때에 百濟式 建築의 法式과 技法을 익힌 阿非知等이 新羅와 日本에 파견되어 百濟式의 집을 서슴없이 지었다는 事實에서 첫째 百濟式建築이 新羅나 倭國에 받아들일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값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阿非知等 建築家에 依하여 設計된 巨大한 建築들이 無難히 세워질수 있을만한 建築社會가 新羅에 形成되어 있었다는 事實이다.

新羅는 阿非知 한 사람의 設計만이 所用되었다. 나머지 小匠 200여명이 處理할 能力을 가졌다. 倭는 그렇지 못하여 寺博士, 瓦博士등이 가서 法隆寺의 경우 네사람의 大木이 合心하여 겨우 집을 이룰수 있었을 정도이다. 이미 倭에는 百濟의 留民들이 많아서 雜役 이외의 役事엔 百濟人들이 대거 참여 하였을 可能性이 짙고 百濟에서 싣고간 物資가 많은 量에 충당되었을 可能性이 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직 建築社會가 發達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할수 있다.

特히 注目되는 것은 第2期은 完塾期라는 點에 있다. 同時에 政情의 不安으로 야기된 後三國, 高麗의 統一 등 격변하는 社會, 權臣들의 난무로 어지럽혀진 社會로 인하여 차분한 建築社會가 이룩되지 못하였고 建築經濟社會 역시 좋지 못하여 建築活動이 위축되고만 쇠퇴이기도 하다.

㉢ 第3期

이때는 高麗 忠烈王에서 부터 朝鮮朝壬辰倭亂때까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第2期까지 공포樣式에 主流를 이루어 오던 拱牙系가 중대한 挑戰을 받게되고 마침내 새로운 公

포의 構成法이 完成되어 처음엔 第2期까지의 拱牙系와 並存하는듯 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새로운 공포양식이 建築의 과반수를 占有하게 되고 마침내 主流를 차지하고마는 격동기가 이 才3期の 前半을 차지한다. 공포가 많이 놓이게 되는데는 그만큼 까닭이 있었을것 같다. 極히 推論的이나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점을 살피면 우선 기둥위에만 공포를 구성하는 것이 위태롭게 보이게 되었고, 사람이 많아지고 建築의 절대량이 증가하였으므로 良材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사람의 생각이 번다스러워져 화려하게 꾸미려는

기후에 맞지않는 지역에서 그것에 적용되도록 변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공포의 구성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발생적인 양식이 아니고 다분히 北邊계통에서 도입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高而 權臣들의 建築活動 및 朝鮮王朝의 山間建築의 조장은 두가지 큰 特徵을 지니게 되었다. 우선 權臣들은 大部分 武人들이 中心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建築柱가 갖추어야할 民識을 충분히 갖고있지 못하였으므로 寺僧에게 그일을 위촉하는 경향이 짙게 되었다. 두째로 抑佛政策이라는 표방아래 절을 지어야 하였으므로 自然 王室이 表面에 나서서 知識人을 총동원하여 절짓는 일에 참여할수밖에 없었다. 寺僧에게 鳩財를 회사하여 절을 이룩하도록 일임하는데 고작이었다. 세째로 스님중 큰 스님들은 海外留學등으로 國際的인 흐름에 민감하였다. 法紋 등의 細帶로 계속 국제적인 交流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여서 절에 여러가지 그런 요소들을 지닌 文物이 머물게 되었다. 네째로 護國願利的인 態度는 계속 堅持되었다.

第3期는 建築思想 가장 격동기에 屬하고 建築家들의 최대의 노력이 허용되었던 기간으로 특징지어진다. 第2期까지의 선명하던 흐름이 多岐化되고 끊임없는 試驗이 여기 저기에서 試圖되어 建築活動의 內容이 풍부하여졌다. 그러나 定型이 확립되지 못하여 비록 多包系가 主流를 이루긴 하였어도 꾸준히 挑戰을 받았고 여러 무책임한 시도로 혼란이 생겨 마침내 第4期에서 일어나게 되는 退調의 함정이 여기서 마련되게 되었다.

② 第4期

이때는 朝鮮 宣祖25年(1592)에 始作된 7年間の 壬辰倭辭은 建築社會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酷毒한 戰爭이었다. 都城을 비롯한 全國의 重要建物들이 무너지거나 깨어졌고 建築造營을 뒷받침하던 經濟社會가 붕괴되고 말았다. 戰爭物資의 조달, 후원 외국군의 조달 등으로 經濟는 最惡의 상태에 이르렀고, 막대한 人力의 손실, 기능자의 死傷, 혹은 납치등으로 建築社會는 前代未聞의 궁지에 몰렸다. 따라서 第4期 初半까

지만 해도 堅持되던 建築의 法式이 제멋대로되어 意匠이나 比例, 架構에 癖점이 많게 되고 공포구성에서도 소화시킬수없는 高等數理의 應用部分에서는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번잡하게 竜頭鳳頭를 조각하여 끼우는 살짝꿈의 재주를 부렸다. 그결과로 第3期에서 생긴 공포구성의 혼란이 한층더 복잡하여져 이점이 多包系인지 拱牙系인지 翼工系인지 또는 절 중엔 어떤 式인지를 단군에 구별할수 없도록 되고 말았다.

2. 韓國 學校建築의 实例

앞에서 보아왔듯이 순수한 民間人에 依하여 設立한 大衆教育機關인 局堂, 鄕校, 書院, 書堂등은 순수한 韓屋이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官學의 경우에는 그 設立目的이 教育內容에서 보듯이 中國(唐)에서부터 儒敎, 佛敎思想을 注入시키고자 그리고 孔子 및 十哲과 72第子像을 모시기 위한 建物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특히 韓屋史에서 보았듯이 建築文化가 中國樣式을 닮았든 것이다.

그래서 新羅時代 神文王이 國學을 열어 그러한 '사람'들을 모실수있는 집을 지었던 것이고 동시에 高而에서는 國子監이라하여 會賓門內에 그校舍를 마련하고 構內에 學生들의 寄宿舍를 마련하여 공부를 하게하였고 孔子의 安置場인 宣聖殿을 지었던 것이다.

그후 朝鮮朝에 와서 儒學을 建國의 바탕으로 하였을 때 成均館은 東崇敎場에다 國初에 高麗때의 方式에 따라 지었다. 이러한 중국 사신 金湜이 잡았는데 그는風水의 지식이 깊어 날로 학문이 번창할 자리를 골랐다 한다.

- Erika Brodner, Immanuel Kroeker. Schulbauten. münchen; Verlag Hermann Rinn, 1971. P~11
- Malcolm Seaborne. Primary School Desig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 ①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P~373
- ② The Korean Repository. Vol. 1. No. 3. 1882. P89~93
- ③ 朴俊熙, 韓國人の 教育觀. 서울; 實學社. 1975. 54~68面
- ④ 朴相萬. 韓國教育思想史(上).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4291~23面
- ⑤ 上揭書. 27~28面
- ⑥ 海東繹史. 卷18. 學禮中
- ⑦ 三國史記 學記中
- ⑧ 朴相萬 76面
- ⑨ 上揭書 117面
- ⑩ 上揭書 118面
- ⑪ 上揭書 121面
- ⑫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23面
- ⑬ 上揭書
- ⑭ 李萬珪. 朝鮮教育史(上). 서울: 을문문화사. 1947. 256~258面
- ⑮ 崔南善(申榮勳 國諺). 不咸文化論. 民學 第2輯에 실림.
- ⑯ 三國征記 卷32 雜誌工. 史
- ⑰ 申榮勳. 韓屋과 그歷史. 서울: 東美文化社. 1975. 14面
- ⑱ 上揭書 17面
- ⑲ 上揭書 124面
- ⑳ 上揭書
- ㉑ 上揭書
- ㉒ 上揭書. 141~181面